



올해 전북자치도 국책사업 '속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등
핵심사업 7건 중투심사 통과
지역 기업 성장 촉매제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2025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등 핵심사업 7건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된 사업은 △전북도청의 '2025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을 비롯해 △전주시 '기린대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군산시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남원시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총 7건이다.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사업'은 전북의 주력·신성장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민간자금 유치와 국가정책자금 연계를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도내 유망 벤처기업

육성에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시의 '기린대로 BRT 구축'은 전북 최초의 간선급행버스체계로, 전용차로를 기반으로 정시성 높은 버스운행을 통해 교통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설계를 완료한 해당 사업은 이번 심사 통과로 내년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특히, 익산시가 주력 중인 홀로그램 등 전략산업의 기업과 기관을 한곳에 모아 산업의 집적과 기술 개발, 상용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도 심사를 통과했다. 향후 익산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문화도시 육성, 통합 하천 정비,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각 시군의 중점사업들이 통과되며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면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에 수차례에 걸쳐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해왔다"며 "중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된 만큼, 도민 편의 증진과 지역 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벚꽃길 즐기는 시민들



쌩쌩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완주군 구이면 구이저수지 일원을 지나는 시민들이 벚꽃을 구경하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

"잼버리 실패, 책임 통감... 다시 도전"

김관영 도지사,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감사원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감사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도가 감당해야 할 책임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감사로 책임의 실체가 명확해졌고, 실패의 본질적인 원인은 여성가족부와 조지위원회 내부의 마찰한 시스템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는 이미 스스로를 가장 엄하게 돌아봤다. 수많은 비난과 정치적 공세를 감내했고, 새만금 사업 재검토라는 위기까지 겪었다"며 "도민들과 함께 전북의 자력과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뼈아픈 자기 검증의 시간을

지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지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점을 강조했다. "잼버리 이후 전북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시켰고, 서울을 제치고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잼버리를 통해 국제행사의 성공은 강력한 권한과 책임, 윤리적 리더십이 함께 작동하는 컨트롤타워, 그리고 신속하고 일관된 의사결정체계에 달려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 교훈을 바탕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해 올림픽 유치에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번 감사 결과가 전북을 향한 과도한 비난의 균형을 바로잡고, 국민들께 실제적 진실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전주 세계문화주간 호주의 문화 '만끽'

내달 3~8일 전주시 '호주문화주간' 행사

관광거점도시 전주에서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오세아니아의 중심지인 호주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5월 3일부터 8일까지 전주한옥마을과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25 전주세계문화주간-호주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대표 글로벌 문화 축제이자 공공의교통사인 '전주세계문화주간'은 올해주한 호주대사관과 함께 마련했다. 시는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호주 측과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했다.

호주 커피 등 시식행사
예술놀이 워크숍 등 마련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문화주간 기념 특별 행사

첫날은 전주한옥마을의 학인당에서 개막식이 예정돼 있다. 개막식은 호주 출신 방송인인 샘 해밍턴의 MC로, 호주 출신 싱어송라이터 올리비아 마쉬와 전주시 노발레 앙상블, 노은실 소리꾼과 해금의 공연 등 호주와 전주의 음악 콜라보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8일까지 다양한 호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이 전주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일에는 '오감만족 호주'를 위한 호주 커피 및 디저트 등의 시식행사, 싱어송라이터 올리비아 마쉬의 미니콘서트, 흑백요리사 시즌1에 출연했던 미셸린 2스타 조셉 리저우드의 '미셸린 셰프의 토크&데이스트'가 한옥마을 오목대 전통정원과 라한호텔에서 개최된다.

5일까지는 '어린이 놀이터: 호주랑 놀아요!'라는 주제로 호주 멜번 출신 작가 페넬로피 바틀라우와 전주 출신 작가 썸머 그리니가 진행하는 예술놀이 워크숍 'Imagine World (나만의 세상 상상

하기)'가 진행된다.

방송인 샘 해밍턴은 '영어로 읽는 블루이'를 통해 다수의 수상에 빛나는 호주의 애니메이션 '블루이'에 등장하는 강아지 '블루이'의 모험을 전주의 아동들에게 들려준다. 또한 조셉 리저우드는 '블루이 쿠킹클래스'에서 호주의 대표 디저트 '파블로바'를 아동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 밖에도 호주 문화주간을 맞아 지역 내 호주식 브런치 카페 등에서도 호주식 아이스크림과 '오지 버거'를 맛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호주문화주간을 기념하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된다.

전주를 찾는 관객들은 본 기간동안 호주의 저명한 영화비평가이자 교수인 에이드리언 마틴이 큐레이팅한 △'게스트 시네필' 섹션을 통해 '이 생의 끝', '스텝핑의 내 사랑', '무소유' 등 호주영화를 만난다. 각 영화 상영 후에는 에이드리언 마틴의 '영화로의 여행' 클래스가 이어져 호주영화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제프 로빈슨(H.E. Jeff Robinson) 주한호주대사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인 전주의 시민들은 물론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오시는 방문객들이 호주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긴 연휴기간인 만큼 모쪼록 전주시를 찾는 많은 남녀노소 방문객들이 호주의 매력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병기 전주시장은 "전주세계문화주간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전주시의 매력을 선보이는 동시에,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전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예술가와 해외 예술가 간의 교류의 장이 되는 행사"라며 "주한호주대사관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